

점포정리 vs 리뉴얼... '비대면 시대' 돌파구 찾는 대형마트

대형마트, 4년간 점포 20곳 문닫아
홈플러스 안산점 등 4곳 자산유동화
롯데마트 연내 부실점포 16곳 정리
"안정적 사업위해 구조조정 불가피"
이마트 대형마트 유일 '실적개선'
지난달 매출 1.6조 전년비 15.7% ↑

국내 유통 시장을 장악했던 대형마트들이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통 공룡'이라 불리며 신규 매장을 연달아 오픈하던 것과 반대로 점포 정리에 나서며 몸집을 줄이는가 하면, 리뉴얼을 통해 새롭게 재도약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유통학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대형마트 20여곳이 문을 닫았다. 홈플러스는 올해 안산점, 대전방점, 대전둔산, 대구점 등 네 개 점포를 자산유동화했다. 몇년동안 지속된 오프라인 유통업의 불황과 코로나



강희석 이마트·SSG닷컴 대표이사



강희태 롯데그룹 유통BU장



임일순 홈플러스 대표이사

19의 영향으로 매출감소가 이어지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롯데마트도 점포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롯데마트는 연내 부실점포 16곳을 정리한다. 지난 5월 양주점과 천안아산점을 폐점했고, 6월에는 VIC신영점(창고형 할인점)의 문을 닫았다. 7월에는 의정부점과 천안점, VIC킨텍스점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했으며 9월에는 서울 구로점과 도봉점(빅마켓),

경기 이천 마장휴게소점의 폐점 소식을 알렸다. 대구 칠성점은 오는 12월 31일 문을 닫는다. 업계 관계자는 "쇼핑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갔고, 대형마트는 지속되는 매출하락세에 놓여있다"며 "안정적인 사업운동을 위해서 몸집 줄이기와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코로나19 직

격탄을 맞은 가운데, 대형마트 중 유일하게 이마트는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 온·오프라인 통합 시너지가 빛을 발했고, 신선식품과 체험형 공간을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마트는 올해 1분기(1~3월) 48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2분기(4~6월)에는 47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앞서 이마트가 공시한 지난달 잠정실적에 따르면, 총 매출은 1조

5681억원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15.7% 증가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할인점 매출이 11.6% 늘어났다는 점이다. 특히 창고형 할인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노브랜드 등 전문점은 각각 36.4%, 18.4% 매출 증가율을 보였다. 신선·가공식품 부문을 강화하는 '그로서리 혁신'을 내걸고 점포 리뉴얼 및 수익성 강화를 위한 다변화 전략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마트는 오프라인 점포 정리보다는 리뉴얼과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경영 전략으로 현 상황을 타개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이마트부문은 2021년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강희석 이마트 대표를 SSG닷컴 대표이사에 내정했다. 이마트와 SSG닷컴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된 것이다. 강 대표는 지난 1년동안 매장 구조 혁신, 리뉴얼, 전문점 사업 재편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낸만큼 온·오프라인 통합 경영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원성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UNIST 김건태 교수가 '금속 이산화탄소 배터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K이노, 이산화탄소 저감 실증화 진행

ESG경영 강화, 책임투자 확대

SK이노베이션이 그린벨런스203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에 나선다. SK이노베이션은 울산CLX가 UNIST(울산과학기술원)와 공동으로 이산화탄소(CO₂) 저감 시스템 실증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통해 내부적으로는 SK이노베이션이 환경 부정영향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전략 방향인 '그린벨런스2030' 성공을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해, 이산화탄소를 본질적으로 저감하게 된다.

특히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는 책임투자를 더욱 확대하게 됐다. 대외적으로는 대기환경 오염의 주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자원으로 재활용하게 되는 셈이다. 양측은 UNIST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김건태 교수팀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금속 이산화탄소 배터리 시스템'의 확대 가능성 및 상업화를 검증한다. 이 시스템은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전기와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교수팀은 이미 연구단계에서 기술 검증 완료했다.

물에 이산화탄소를 넣으면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는 제거되고, 전기와 수소가 만들어지는 방식이다. 이산화탄소가 녹은 물에는 수소이온(H⁺)이 많아져 산성을 띄게 되며, 이때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수소(H₂)도 생산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이산화탄소의 전환 효율이 약 6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다. SK이노베이션 울산CLX는 실증화 사업을 위해 UNIST 등이 설립한 산학연 공동연구법인에 출자 형태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올초부터 관련 논의를 지속해왔다. 산학연 공동연구법인은 현재 공공기술 사업화 컨소시엄을 지원해, 지역 신사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연구기관 Big 선도모델 사업'에 지원한 상태다. 양측은 향후 SK이노베이션 울산CLX 생산공정 중 발생하는 연도가스의 이산화탄소(CO₂),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가능성을 테스트한다. 여기서 연속공정 사업화 등 상업성이 확인되면, 함께 공동 사업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개혁입법, 숙원 이뤄... 책임수사 확립을"

文 대통령,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
"경찰, 사명·책임감으로 어려움 극복
'가장 안전한 나라' 만들어 가는 중"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안전이 일상 이 되고, 공정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 사람 한 사람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자부심으로 명예로운 경찰의 길을 걸어간다면 국민은 더 큰 '존경과 사랑'으로 화답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국민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 감토 어디에서든 경찰이 함께하고 있어 참으로 든든하다. 업무 특성상 극한직업이라는 말까지 듣지만, 우리 경찰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활약한 경찰의 노고를 치사했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대화경찰관 제도', '공개와 소통'에 기반한 집회시위 대응 등을 언급하며 "우리 경찰의 역량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존중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경찰은 올 한 해,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 수사본부 구성을 통한 관련자 2000여명 검거 및 185명 구속 ▲아동학대 점검팀 구성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 발굴 및 8500명의 재학대 위기 아동 집중 점검 등 사례에 대해 언급하

며 경찰을 칭찬하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 출범을 비롯한 경찰 개혁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 출범과 관련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해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시 바란다. 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라며 재차 개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최근 업무 현장에서 경찰이 다치거나 순직하는 등 사고가 빈번한 점을 의식한 듯 기념식에서 경찰 정신을 실천하다 순직한故(고) 이종우 경감,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현양된故(고) 이준규 총경,故(고) 유재국 경위의 유가족뿐 아니라 교통사고 처리 중 공상을 입은 김진영 순경 등과 자리에 함께해 위로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9월 생산자물가지수 9달째 상승

한은, 농림수산물 지수 역대최고치
생산자물가가 지난달까지 9달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태풍과 장마 등으로 농림수산물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3.35(2015=100)로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지난 6월 이후 4개월째 연속 올랐다. 특히 농림수산물이 태풍과 장마 등으로 4.9%나 상승했다. 지난달 농림수산

품 지수는 139.66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5년 이래 최고치다. 농산물이 7.1% 상승한 가운데 축산물과 수산물도 각각 4.2%, 1.3% 올랐다. 품목별로는 배추(30.5%)와 풋고추(88%), 건고추(50.6) 등의 상승폭이 컸다. 반면 공산품은 국제유가와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월 대비 0.1% 내렸다. 석탄 및 석유제품이 3.3%,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가 0.2% 하락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